

이슈 브리핑

❶ 이슈 요약

- ◆ 중국, 11월 승용차 판매량이 2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반면, NEV 승용차 판매량·판매 비중은 오히려 증가
- ◆ 중국 Horizon Robotics, 단일칩 기반 ADAS를 바탕으로 보급형 차량까지 도심형 주행보조 기술 적용 확대 계획
- ◆ EU 집행위, 중국에서 생산·수입된 Volkswagen 전기차에 부과해온 상계관세 재검토 착수
- ◆ 美 행정부, 완성차 기업에 대한 평균연비 규제(CAFE) 기준을 완화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규제 권한 폐지 추진
- ◆ VW, 향후 5개년 투자 규모를 1,600억 유로로 축소하고, 독일·유럽에 초점을 둔 제품·인프라 강화 추진
- ◆ EU 집행위,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의 유럽 제품 사용 비율 상향을 위한 법안 발표를 '26.1월 이후로 연기

◆ 중국, 11월 전체 승용차 소매 판매 2개월 연속 감소

- 중국승용차협회(CPCA)에 따르면 11월 중국의 승용차 소매 판매량은 222.5만대(전년동월比 -8.1%)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, 승용 NEV 소매 판매량은 132.1만대(+4.2%)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
- 11월 승용 NEV 비중은 전체의 59.3%에 달하며, 1~11월 누적 NEV 판매량은 그간의 NEV 전환 보조금 등에 힘입어 1,120만대를 상회
- 한편 같은 달 승용 NEV 수출량이 28.4만대(전년동월比 243.3%)에 달하여, 중국 자동차 제조사의 해외 사업 확장세가 부각

CnEVPost('25.12.8.) <https://bit.ly/4a79Yug> WSJ('25.12.8.) <https://bit.ly/44O97em>

◆ 중국 Horizon Robotics, 보급형 차량에 도심형 ADAS 도입 추진

- 중국 지능형 주행 기술업체 Horizon Robotics는 자사 단일칩 기반 도심형 ADAS를 탑재한 차량이 조만간 양산에 돌입, 도심 주행 보조 기능이 10만 위안(2,080만원)대의 차량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발표
- 동사는 파트너사와의 튜체인 협력으로 OEM S/W와 칩의 통합을 돕고, 차량 개발에 즉시 적용 가능한 패키지 ADAS 솔루션을 제공하여 자사의 기술·제품 적용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
- 또한 컴퓨팅 성능 및 효율을 개선한 4세대 BPU(Brain Processing Unit) 아키텍처를 차세대 AI 칩에 적용하여 자율주행을 고도화할 계획

Gasgoo('25.12.8.) <https://bit.ly/3Yhq7pB> SMM('25.12.8.) <https://bit.ly/4q5M8nj>

◆ EU 집행위, Volkswagen 중국산 전기차 관세 재검토 착수

-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수입 전기차(BEV)에 부과하는 상계 관세와 관련, 중국산 Volkswagen 모델에 대한 상계관세 재검토에 착수
- * EU는 '24.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.3%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, 중국에서 생산된 VW의 차량(Cupra Tavascan)에는 20.7%의 관세율 적용 중
- VW은 '연간 수입쿼터 및 최소 수입가격 설정' 등을 담은 제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EU 집행위가 해당 제안 승인 시 VW이 상계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

Reuters('25.12.4.) <https://bit.ly/48kl2BP> Bloomberg('25.12.5.) <https://bit.ly/446GGbs>

◆ 美 행정부, 완성차 기업에 대한 신차 평균연비 규제 완화

- 美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가 규정한 기업평균연비제(CAFE)*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'31년식 신차의 평균 연비를 약 21.4km/L에서 약 14.6km/L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개

* 자동차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미달 시 제조사에 페널티 부과

-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신차 가격을 대당 약 1,000달러 낮추고, 향후 5년간 총 1,090억 달러의 소비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
- 한편 이번 조치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자체적인 배출가스 규제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캘리포니아주 및 환경 단체의 반발을 야기

White House('25.12.3.) <https://bit.ly/4pAewhm> Automotive News('25.12.4.) <https://bit.ly/48ne3Jz>

◆ Volkswagen, '30년까지 독일·유럽 중심으로 1,600억 유로 투자

- VW 그룹은 '25년 자사 순현금흐름을 5억 유로 미만으로 전망하고, 향후 5개년(~'30년) 투자 계획을 1,600억 유로로 축소한다고 밝힘
- 향후 투자는 독일·유럽 중심의 제품 및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고, 최근 실적이 부진한 미국·중국에서는 별도의 사업 전략을 활용한다는 계획
- CEO인 Blume는 '30년 VW 그룹의 목표가 경제적으로 견고한 회사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며,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방침을 예고

Automotive News('25.12.6.) <https://bit.ly/4pRIEFS> Reuters('25.12.6.) <https://bit.ly/44huGDX>

◆ EU, 유럽산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법안 발표 '26년 초로 연기

- EU 집행위는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제품의 유럽산 구성비를 최대 70%로 높이는 '산업가속화법(Industrial Accelerator Act)' 초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, 내부 이견으로 법안 발표를 '26.1월로 연기
- 관련하여, 자동차 분야에서는 부품·배터리의 일정 비율을 유럽산으로 조달할 경우에만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음
- 한편 체코 등 8개 회원국은 동 법안이 통상 갈등을 초래하고 EU의 혁신을 저해하며 유럽산 부품 구매에 연간 100억 유로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상태

Financial Times('25.12.3.) <https://bit.ly/3KIhwsS> Financial Times('25.12.8.) <https://bit.ly/3XEarg5>